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역자 되길

교단 2024년도 목사고시 치러, 총회 고시위원회 주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2024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1월 29일(월)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 주관으로 총회본부 3층 강의실에서 치러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목사 임직 대상자들과 고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신학원 3층 강의실에서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기도 후 고시위원 소개와 시험일정 안내 순서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기도를 통해 “목사사역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일цеп일회도 가감 없이 전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뿐 아니라 온 마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오직 주님의 사역 감당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기도하는 사역자,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모두 좋은 결과를 염도록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서 1교시 교회사, 교회성장학을 시작으로 교회행정학, 구약학과 신약학, 조직신학, 목회윤리학, 기독교교육학, 현법이 차례로 치러졌고 오후에는 성경고시, 설교 및 면접 등의 시험이 계속되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2024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1월 29일(월)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 주관으로 총회본부 3층 강의실에서 치러졌다. (목양신문 자료사진)

과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5월 20일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각 지방회별로 거행된다.

올해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은 이번 목사고시를 통



목사고시를 치르기에 앞서 고시위원들의 모임



목사고시 개별 면접

교단 제72차 총회 제9회 임원회

‘부정선거 없도록 수개표, 전산시스템도 철저 감시해야’

북의 핵도발 대처 한미일 공조강화



교단 제72차 총회 제9회 임원회에 최근 지방회 통합을 이룬 부산지방회와 부산동지방회 주요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9회 임원회가 지난 1월 29일(월) 오전 11시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회 김병목 목사의 회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기도, 교단 정체위원회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렘 33: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달리하게 밟게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사례 첫 교단 지방회 통합소식이 들려와 부산지방회와 부산동지방회 임원들이 참석(정기영 목사, 김태주 목사, 정

영진 목사, 조정화 목사, 조은희 목사, 사진 참조)하여 8년만에 지방회가 하나 되었음을 전하고 교단 임원들은 통합을 축하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었다.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 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정진균 목사의 종무보고, 재무 벤영자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조선남 목사의 회계보고 시향으로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는 부흥시기회 단합기도회, 사이버신학원 출입예배,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교역자가 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역자 사임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 변경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되었다. 이어 2024 전국 청년 동계 연합수련회 개최 일본 지진피해 후원금 전달(선교 위원장 임형순 목사 일본 하나님의성회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참석 후원금 전달),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지원요청,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등의 사항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감염병 공식 종료 선언 후에도 끊임없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어지고 강력한 독감을 비롯 최근 폐 많은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점검했다.

이어 임원들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말씀에 과정으로 영혼을 수령으로 빼놓는 사이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공조의 품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틀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특별히 민주주의의 향이라 불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수) 열리는 것과 관련 부정 선거의 칠저한 방지를 위해 검표과정의 수개표 작업 및 전산시스템 조작을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행정 조치 마련을 완벽하게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위해, 좌편향 광고된 교서로서 교육이 어긋나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홍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십니다’



조용목 목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민 14:8,9)

인간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은 이 차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거나 책임을 맡아 해결해줍니다. 점으로 놀랄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사나 의지에 관계없이 특정한 개인이나 딸에게 직접 알려 주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흉수 심판에 대하여 예고하시면서 병주를 예비하도록 하신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들으므로 알게 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 하나님에게 물어서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건을 제시하여 물기도 하지만 대체로 기도로써 묻습니다. 기드온처럼 우리가 정한 표적을 하나님에게 요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인을 유심히 살펴보아서 하나님께 책임져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십니다.

하나님께 만사를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십니다. 실후 부족하여 일을 그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누누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책임을 맡아 해결해주시는 체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면 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23) 하였습니다.

이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간악한 종교대신 하만의 흉계로 유대민족이 멸절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모르드개는 유대인들에게 닥쳐온 절체질경의 위기를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그녀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멸절을 면하게 되었고 도리어 하만 일족이 멸절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구원해주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굳세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책임지시고 증명하여 주십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를 증명하는 본보기들로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난관을 책임지고 해결해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원리를 모든 일에 적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요단 강의 흐름이 멈추게 되어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는 기이한 일을 체험하였습니다. 난공불락의 묘사인 어리고 성이 무너지는 신기한 일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로 인해 당면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책임을 맡아 해결해주시는 체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면 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中 공안당국, 가정교회 급습 2백여 명 체포

비터윈터 “삼자교회 교리 거부하는 교회 가입한 혐의 적용”

중국의 종교 자유 및 인권을 다루는 매체 ‘비터윈터’(Bitter Winter)는 최근 “중국 공안 150여 명이 지난 1월 27일(이하 한시기각)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샤오태탄에 소재한 가정교회 집회에 들어가서 체포되거나 성도들을 제포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안당국이 기독교 집회를 급습해 약 200명을 제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포된 이들은 대형버스 3대와 승용차에 실려 현장에서 끓겨났으며, 현재까지 행방이 알리지 않고 있다. 이들은 ‘솔리피데’(Sola Fide) 네크워크 소속 가정교회 성도들로, 국가기관이 승인한 신학

교리를 따르길 거부하는 교회에 기입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터윈터는 “이 미술에서는 매달 대규모 기독교 집회가 열리며, 여기에는 700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을 주민은 “습격이 있기 전 마을 인근에 익스피리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봤다”며 “범죄자를 체포할 때도 공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했다.

삼자교회 기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 온 광저우성 경계교회 역시 최근 무장한 경찰과 정부 관리들의 급습을 당했다.

크루②

포토뉴스



교단 선교국장 임형수 목사(순복음이엔 교회)는 지난 1월 29일(월) 일본 지방회를 방문하고 일본 지진피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재선임

제35회 정기총회, 연합기관 통합…동성애문제 해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 1월 30일(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카데미홀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열고, 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예장개혁 총회장)를 제27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단독 후보로 등록한 정서영 목사를 민정일자 기립 박수로 추대하여, 새 회기를 연이어 이끌어 가도록 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공동회장 임이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현숙 목사의 기도, 평의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 전임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루어졌다.

업무는 행 3:6-10 말씀을 본문으로 '기적의 역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기총 모든 회원들이 합심해 예수를 전하는 2024년 이 되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한기총을 보라', '기도하는 우리를 보라' 합심하는 우리를 보라'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해가 되자'고 전했다.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정기총회가 이어져 2023년 각 회의 및 사업, 감사결과 보고를 받았고,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정관개정안도 가결했다.

대표회장에 재선임된 정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한기총을 지킬 것이고 통합에도 꾸준히 대회를 시도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한기총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 다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한 해에 한기총의 모든 교단과 단체가 하나로 뜻을 품쳐서 한기총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한기총이 새롭게 변화되고 동성애 문제 해결, 각종 주요사업 추진 등 국민과 한국기독교와 사회와 정부로부터 평신히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한기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영풍회 '한국교회 대표 단체' 잘 이끌어주시길

한국기독교영풍회, 송기배 목사 대표회장 취임



한국기독교영풍회 제41대 대표회장은 송기배 목사(기정사랑학교 대표)가 취임했다. 신임 대표회장 송 목사는 "하나된 마음으로 역사에 날을 부흥을 이루고, 한 알의 밀알의 심정으로 달려가겠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라 했던 사도바

행됐다. 1부 예배는 김정무 목사의 사회로 김기성 목사가 기도하고, 계안절 목사가 설교했다. 축도는 김정일 목사가 인도했다.

2부 대표회장 이·취임식은 이진호 목사의 사회로 하은혜 목사가 기도하고, 송기배 목사의 취임사, 이성희 목사의 권면, 이종수 목사의 격려사, 김서호 목사, 정상업 목사, 이진우 목사의 축사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특히 이성희 목사는 '천부림도 맞으며 천체를 조망하는 미부처럼 영풍회를 잘 이끌어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송 목사님'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며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면서 영풍회를 잘 이끌어가고 한국교회 대표로서 단체를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하며 축복했다.

울의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 지금까지 그 래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다해 부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일성했다.

지난 1월 29일(월) 예수인교회에서 진행된 대표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회는 1부 예배와 2부 대표회장 이·취임식으로 진

나사렛대-한성연, 제3차 공동포럼 개최

성결교단 대학간의 연합과 협력 강화

한국성결교단 소속 대학 나사렛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가 1월 25일(목) 나사렛대학교 창학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제3차 대학혁신지원사업 공동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성과포럼은 2023학년도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도 나사렛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한국성결교단 연합'을 발족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공교육, 교양교육, 비교교과프로그램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김찬우 팀장의 '대학혁신과 평가'를 기조강연으로 3개 대학은 2023학년도에 진행한 대학혁신 지원사업 성과를 사례



별로 소개했으며 3개 대학 교양대학 교양 공유대학 포럼도 함께 진행했다. 우수사례로는 스마트대학 'Na-MOOC 프로그램 운영 사례' △서울신학대학교 'ESG 교과 SL 및 문화나눔 비교교과 SL 운영' △성결대학교 '청의문화체계(Sungkyul Creative Challenge) 프로젝트'

주제로 발표했다.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은 "기독교신을 바탕으로 성결교단 대학간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가 크게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학 간 공유와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기총, 2024 신년하례예배 및 기도회

제42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뉴저지기도회 함께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1월 22일(월) 오후 5시(미국 동부 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 더블트리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세기총 신년하례예배 및 제42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뉴저지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기총 미동북부회장 임명장 수여식과 한국전 참전용사 평화메달 수여식, 그리고 신년축하 음악회가 함께 열렸으며 세기총 임원과 미국 한인 사회 지도자 및 정·재계 사회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드린 신년하례예배 및 제42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뉴저지기도회는 41차 동안 진행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회 영상이 상영된 뒤, 김태수 목사의 환영사,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의 신년사, 김동권 목사(뉴저지교협 회장)의 대표기도, 박성철 목사(미동북부수석부회

장 내정자)의 성경봉독, 뉴저지장로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신년사에서 "올해는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등 의미 있는 해"라며, "한국교회가 사랑을 다한 결과를 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망했다.

이어 제5대 대표회장 황이준 목사가 '꿈꾸는 자와 이루는 자' (창 37:18-20)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으며 테너 홍진호 씨의 한글찬양과 강영안 장로(뉴저지장로연합회 회장)의 대표기도, 박성철 목사(미동북부수석부회

장 인도) 드린 특별기도에는 전광성 목사(하코네시야교회)가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과 북한동포들을 위해', 손성대 장로(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장)가 '미주복음화와 한인교회를 위해', 정관호 목사(뉴욕목사회 회장)가 '더·우 이·팔 전쟁 종식과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해', 구성모 목사(세기총 정책연구원장)가 '2만 한인 선교사와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해', 장다니엘 목사(Grace Church Stamford)가 '다음세대와 625 참전용사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성서공회, 탄자니아에 성경 기증…이웃사랑실천

서울베다니교회의 후원으로 2,300부 보내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순권 목사)가 서울베다니교회(미성호 목사)의 후원으로 탄자니아에 '스위힐리어 성경' 2,3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지난 1월 19일(금) 가졌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베다니교회 미성호 목사는 "저희들이 탄자니아에 2,300권의 성경을 보내는 것은 2,300개의 영적인 빛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능력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전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라며 기대를 전했다.

탄자니아성서공회 알프레드 키몽게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서울베다니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성경은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될 때, 여러 악습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공동체에서 소망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한장부총협-한사연, 업무협약 체결

'출산장려운동' 두 기관이 함께 펼쳐 나가기로



한국교회장로부총회장협의회(대표 김영구 장로/이하 한장부총협)와 한국사회발전 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원장 김춘규 장로/이하 한사연)이 지난 1월 22일(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출산장려운동을 함께 펼쳐 나기로 했다.

한장부총협은 예장합동·예장통합·예장백석·기성·예성 등 11개 교단 장로부총회장들의 모임이다. 양 기관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소멸이란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여 국가와 교회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며 "인구절벽은 한국교회가 더 절박한 상황이며, 국가는 생산인력 확충방안으로 외국인의 한국이주 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교회는 이슬람 등 타 종교의 급증으로 인한 기독교의 소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에 공동으로 결혼 및 출산장려운동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약에 따라 먼저는 '결혼장려기금 대출

진행한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결혼식 장소, 피로연, 예물, 식장장식, 예복(대여) 등을 무료로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원하는 사역자들로 친정부모 결연, 신생아 보호 및 양육을 돋는 보호출산 사업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이로써 성경적 가치인 조기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신인사회에서 대표 김영구 장로는 "다음세대 사역 중 심각한 문제가 출산이다. 다음세대들이 출산을 안 하면 1년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것과 같다"라며 "골든 타임은 5년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기입 여성이 약 35만 명이 있다고 한다. 이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한다면 5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문제(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애기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육아 문제'가 많았다.

갈릴리선교회, 신년감사예배 및 총재 취임식

총재 홍종성 목사, "머슴처럼 일하겠다"

갈릴리선교회(회장 엄달권 목사)는 지난 1월 15일(월) 오후 2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새로운제자교회(담임 김찬호 목사)에서 신년 감사예배 및 임명·위촉·축대하고 홍종성 목사 총재 취임식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장비술 목사(성인고부)의 인도로 김석란 목사(완나연합대학교)와 한국후

원회장(이하 홍종성 목사의 성경봉독, 김찬호 목사(새로운제자교회)의 사 60: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흥행무도한 땅에서 일어나 빛을 밝히라"라는 제목의 설교, 김병선 목사(파이선총회신학 연구원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예배는 장비술 목사(성인고부)의 인도로 김석란 목사(완나연합대학교)와 한국후

원회장(이하 홍종성 목사의 성경봉독, 김찬호 목사(새로운제자교회)의 사 60: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흥행무도한 땅에서 일어나 빛을 밝히라"라는 제목의 설교, 김병선 목사(파이선총회신학 연구원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총재 홍종성 목사는 출신사에서 "임명받은 총재 명칭은 오늘만이다. 내일부터는 머슴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머슴과 같이 주님께 충성하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노정균·강선주 선교사(데비논의료선교)의 선교보고, 사역자의 광고, 송창섭 목사의 식사기도 후 주기도문으로 행사가 마쳤다. △총재 홍종성 목사 △사무총장 우제홍 목사 △부회장 주일장·권오숙 목사 △복지위원장(의료선교) 유희진 목사



희망친구 기아대책, '마하나임 기도회' 700회째

'중보기도의 힘' 직원과 후원자가 모여 2007년부터 이어와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유원식)은 후원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마하나임 기도회' 700회를 기아대책 강서구 사옥에서 드렸다. 고 1월 26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마하나임 기도회'는 이번 700회를 맞아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기아대책 전직원 예배와 함께 드리졌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을 비롯한 전직원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지역본부, 해외지부 및 현장참석이 어려운 마하나임 위원회를 통해 기도회에 참여했다.

마하나임 기도회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 내에서 진행하는 기아대책의 다양한 사업 및 기부봉사단, 후원자를 위한 기도와 국가, 복음통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회다.

700회 기도회는 열방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국가를 위한 기도, 기아대책 사역을 위한 기도 순서로 진행됐다. 전세계에 복음을 전해지고 전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딤세대를 위한 기도에 이어, 기아대책이 7대 핵심 가치(▲예수그리스도 주권 ▲부정성 ▲전문성 ▲순수성 ▲협력 ▲정의와 혁신 ▲감동)를 실현하는 미션 NGO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생명의 말씀

배명식 목사
• 미국 신학장로교회

기독교 성경 역사를 둘로 나누어서 구 속사와 세계사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역사의 분기점은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개인의 역사와 아벨의 역사가 있다. 이 두 역사는 제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로 나누고 있다.

1. 개인의 제사
개인의 제사를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개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 받지 않았느냐

나는 이유를, 첫째로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아니했다. 둘째로 자기 노력(의)으로 농사를 지어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아니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물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제사 드리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 원문 4-5절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아벨을 살피신 후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나 개인은 살피신 후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으셨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살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을 살피고 개인을 살피 후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개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개인은 제사는 드렸으나 그 속에는 악이 기득했으며 그로인해 간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형식적이요 외형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다. 개인은 제사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형식보다 더 귀중한 마음의 자세는 갖추지를 못하였다.

오늘 우리의 무수한 예배와 찬송과 기

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떠나고 인간들이 모여서 즐기고 웅성거리는 인간 위주의 예배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하나님은 이를다운 제물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음은 드리지 않고 물질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자. 하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기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했다. 여기에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요, 기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 아벨은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과 정성이 담긴 제사를 드렸다.

영국의 존뉴튼은 구체불능의 인생행로를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사람이 된 분이다. 20세에 아프리카를 왕래하는 노예

선의 선원생활을 하며 많은 죄를 범하면서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깁김한 어두움을 헤매었다. 그는 어느 날 자기가 태어난 노예선이 폭풍으로 죽을 직전에 있을 때 옆에 지나던 배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때 그 배에서 몇 일을 지내는 동안 몇 권의 책을 읽던 중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회개하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 깁김한 심령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존뉴튼은 특별히 친승기를 많이 지었다. 그의 유명한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다.

예배의 첫째 조건은 구속의 은총을 감사함이다. 예배 전에 니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봐야 한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라지 않겠다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이다. (롬 12:1, 14:7)

3. 두 제사의 결과

개인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불평불만 가운데서 드린 제사가 살인을 하는 무서운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속역사의 기원을 이루었으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여인의 후손, 창 3:15, 갈 4:4),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하브리서 11장의 믿음 열전을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를 말씀하고 있다.

아님의 혈통에서 한 이들은 죽음의 역사의 창시자가 되었고 한 이들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오늘날 우리도 꼭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혹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

동정

부기총, 강안실 대표회장 취임식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대표회장 강안실 목사)는 지난 1월 25일(목) 부산 동래구 동래중앙교회(담임 정성훈 목사)에서 제46회기 대표회장 취임식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강안실 목사(은평중앙교회)는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서와 화합으로 교계가 하나님 되자”고 강조했다.

사학법재개정대책위 대응 모색



예장통합 총회 제108회기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는 지난 2월 1일(목)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세미나’를 열고 기독교학교의 위기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총회는 이날 기독사학의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밤' 행사 개최



(사)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 회장 황우여(右)와 (사)국제마주이스라엘포럼 회장 김진섭(左)은 지난 1월 30일(화)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2024 신년 하례 및 이스라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교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 황우여 회장은 “전쟁으로 아파온 가운데 있는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라고 했다.

한기총 총무협 서승원 회장 취임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 회제24회기 회장 서승원 목사(합동보수총무)의 취임식이 지난 2월 1일(목) 한기총 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 행사는 단순 회장의 취임 외에도 총무협 내부의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의 3.4%만이 장기기증 참여

사랑의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누적 178만 명을 넘어섰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 접계된 2023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83,362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가 늘어났으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누적 희망등록자 수는 178만 3,283명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가 장관한 지난 2020년 6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3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작년 희망등록자의 성별은 남성이 37%(80,867명), 여성이 63%(62,495명)으로 여성 참여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20,938명), 서울(15,245명), 부산(6,675명), 경남(6,282명), 인천(4,460명) 순으로 등록자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젊은 층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 증가세가 뚜렷했는데 20대가 21%(74,229명)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살펴보아도 23%가 20대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체 등록자의 40%가 10~30대인 MZ 세대인 것으로 나타나는 데에 뛰어넘었다.

노사 장기기증인의 수도 증가해 2018년 이후로 가장 많았다.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483명으로 전년 대비 19% 정도 증가했다. 노사 장기기증인의 나눔을 통해 2023년 신장(814건), 간장(420건), 심장(245건), 폐(202건), 헤장(24건) 등 총 1,706건의 고형장기 이식수술이 이뤄졌다.

생명의 샘

김바울 목사
• 경기지방회장
• 순복음진리교회

제자들을 돌아본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글가역에 ‘바라보시고’로 번역된 헬리어 ‘네이시메노스’의 기본형은 ‘네아오마이’로서 이것은 ‘관심 있게 보다’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흡성을 들고 떠르는 요한의 제자들을 돌아서서 관심 있게 보셨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티제테이데)라는 질문을 하였다. 여기서 “그(예수)가 말씀하신다”라는 동사 ‘네이’가 현재시제로 쓰인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떠르는

제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한글가역에서 ‘구하느라’로 번역된 헬리어 ‘제테이데’의 기본형은 ‘제테오’로 무언기를 열심히 찾을 때 사용되는 말로 우리말로는 ‘추구하다, 애쓰다’로 번역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구도라고 하는 이유는 무언기를 열심히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물질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이지 구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도 밝혔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을 통해 찾는 것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교회만 찾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맹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요한의 두 제자는 “滥비여, 어디에 계십니까?”라는 요한의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였다. 직역하면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이다. “와라”(에르케스데)는 현재시제이고, “볼 것이다”(세스

데)는 미래시제이다. 이것은 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지만 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외라, 그러면 보게 될거야.” 이런 의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where)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계신 곳은 지성소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도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4) 와서 보고 함께 거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더니라”(요 1:39) “滥비여, 어디에 계십니까?”라는 요한의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였다. 직역하면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이다. “와라”(에르케스데)는 현재시제이고, “볼 것이다”(세스

데)는 미래시제이다. 이것은 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지만 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외라, 그러면 보게 될거야.” 이런 의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where)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계신 곳은 지성소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도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4) 와서 보고 함께 거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더니라”(요 1:39) “滥비여, 어디에 계십니까?”라는 요한의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였다. 직역하면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이다. “와라”(에르케스데)는 현재시제이고, “볼 것이다”(세스

데)는 미래시제이다. 이것은 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지만 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외라, 그러면 보게 될거야.” 이런 의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곳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몸 안의 지성소에 시민들에게 이미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인 한국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므로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인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목사라면 당장이라도 그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라도 힘쓰기 바란다.

‘부산·부산동’ 8년 만에 연합신년하례예배

부산지방회·부산동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와 부산동지방회(회장 조정화 목사)는 지난 1월 11일(목) 순복음주잔미교회(부산동지방회 부회장 윤혜영 목사 시무)에서 연합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감당을 위해 현신힐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부산동지방회장 조정화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산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의 대표기도,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고후 3:15-18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므로 우리가 하나님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고 “뿐만 아니라 8년간의 긴 시간들 속에서 연합을 꿈꾸어 왔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연합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성령님의 역사이며



영광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이 이 연합예배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연합예배가 단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차후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동지방회 총무 조은희 목사의 현금기도, 간격에 찬 통성기도 후 부산지방회 전임회장 고영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주찬미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한 뒤 교회 옥상 카페에서 연합에 관한 의견들이 나왔고 민장일치로 찬성하여 2월부터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정기지방회 및 종회 때 교단에 보고하기로 합의한 뒤 회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즐거운 대회를 나누었다.

8년만의 연합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귀한 날로 2월 연합예배 때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이마순 목사)는 2024년 신년김사예배를 지난 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한소망교회(담임 이마순 목사)에서 드리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회원들 서로를 축복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만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안선자 목사의 대표기도, 전임지방회장 엄기설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벤전 4:7 말씀을 본문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여, 기도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기도가 되어, 바로 지금 내 영혼을 깨우고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기꺼이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설교 말씀대로 정신 차려 기도하



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후에,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에 공정하고 진실한 나라의 일꾼을 잘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교단과 지방회, 각 지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통성기도 후 김사랑 전도사(대전양부리 교회, 정운기 목사 시무)에게 임명장을 전달

하고, 교단총회장 김병록 목사의 현금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1월 월례회를 잘 마친 후, 한소망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떡지 한 마리로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환호와 애수음이 교차하는 윗놀이로 친교를 다지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서로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스포츠선교회 탁구선교회 2월 모임

교단산하 스포츠선교회 탁구선교회에서는 건강한 생활체육 탁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함께 복음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고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2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찬양교회(담임 엄기설 목사)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41번길 15

회장 : 엄기설 목사

총무 : 기호선 목사

서기 : 문찬우 목사

회계 : 이반석 목사

참여문의 010-5145-3816

믿음의 교제와 체력단련으로 함께 하실 동역자님을 기다립니다.
※초보자 레슨 환영합니다.



정기지방회 열고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출

일본지방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일본지방회(회장 최남도 목사)는 지난 1월 29일(화) 오시카 은혜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기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장 최남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염순복 목사의 대표기도,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의 하백국 2:14, 3: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부흥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 임형순 목사의 축도, 총무 정성애 선교사의 광고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는 총무 정성애 선교사의 회원점명, 지방회장 최남도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 정성애 선교사와 회계 이방영 섭섭(우노임마누엘교회), 부회장 정성애 오 선교사가 지방회 업무에 대해 부서별 보고



회), 회계 이방영(순복음사바에교회), 서기 김복순(힐렐루아교회), 김사 전왕성(가스미 가우리교회)을 선출하고 정기지방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것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허만운 목사)는 지난 1월 29일(월) 안동성곡교회(담임 강태진 목사)에서 시무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주천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전임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행 1:3-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와 구속의 은혜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여호수아 목사(시온순복음교회)의 현금기도, 강태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각종 지방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원들은 고급부페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식사 후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전망대 타워에 있는 찾집으로 이동해 차를 마시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각자의 사역 자리로 향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출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 (고지 면모를 다스리)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 (유실증)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에방 (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 (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에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 (학계보고)

3)탁시풀린 : 퇴행성 관절염, 끌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 불어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흥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 (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콧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제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증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짙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인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종교의 자유 위한 총선에서의 소중한 선택-자유민주주의 지킨다” 강조

“국가안보역량강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기도 당부

아산시지도자협의회 제2차 간담회



아산시지도자협의회
(대표 진등용 목사)는
지난 2월 6일(화) 택민
교회에서 제2차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
한 기도회와 간담회를
갖고 균형잡힌 지역발
전과 국가의 안보 국민
화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껏 허여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실무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
회, 박희종 장로(아산시 장로회장)의 기도,
김소윤 전 기감 감독의 설교, 김수홍 목사
(경목실장)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소윤 감독은 신 6:4-9 말씀을 본문으
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제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 속
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교회생활, 사회생활
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부 간담회는 대표 진등용 목사(예하성
전임총회장)의 진행으로 4월 10일 국회의

특히 지도자들은 나라사랑하는 일에 최
선을 다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가자
고 강조했다.

곧바로 이어진 2부 기도회는 흥설흥 목
사(상임회장)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과 대
통령을 위하여-신상우 목사(전 나시렛 총
회감독), *4·10총선과 공명선거를 위해
여-강성철 목사(원로목사 대표), *민족복
음화와 아산시복음화를 위하여-김병완 목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 *아산시 발
전과 지도자를 위하여-박자영 목사(기독
경제지도자 대표), *국가안보와 치안질서
를 위하여-임인순 목사(지도자협의회 여
교역자 대표), *평신도복음화운동과 학생
인권 조례안 폐지를 위하여-박서우 목사
(총남행신도 총장)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에 힘쓸 것을 몸소 실천하자
고 했다.

아산시지도자협의회 대표 진등용 목사
는 아산시지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매월
기도회로 모이게 될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고 이율리 훈련한 정국이 수습되어 하
루 속히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할 것과 차
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학생인권조례안이 폐
지되도록, 총선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준비한 만찬을 함께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
누었다.



원 총선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
기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인민들의 투표에 적극
참여함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명규 국회의원은 ‘4·10 총선의 결과
와 윤 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평
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당부
했다.

김용규 충남도의원은 도정 동향보고
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나라를 지켜낸다는
비장한 각오로 투표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대학교수협회 대표 박성기
교수는 ‘국가안보와 정세보고’에서 북한
핵도발 저지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
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전만권
아산을 지구당 위원장은 지역동향을 보
고했다.

아산시지도자협의회 대표 진등용 목사
는 아산시지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매월
기도회로 모이게 될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고 이율리 훈련한 정국이 수습되어 하
루 속히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할 것과 차
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학생인권조례안이 폐
지되도록, 총선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준비한 만찬을 함께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
누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
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 학과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신학과 (신입생) | 3년 6학기 (140학점) |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
| 신학과 (편입생) | 2년 4학기 |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3.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장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증본(3개월 내 발급)
- ⑤ 신인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증본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www.ucts.org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4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출입해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질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울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원정.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7-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 학과 | 과정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목회학 석사 (M.M/Mas ter of Ministry) | 3학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

2. 전형 방법

- ① 원서 교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3.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개별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주천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증본(2개월 내 발급증명)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학적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ds.org에서 출입 신고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아산시지도자협의회



아산시지도자협의회

대 표
진등용 목사
(전)예하성총회장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
교회사연구소장

상임회장
김용규 도의원
(전)아산시의회의장

실무회장
홍석용 목사
(전)아기연대표회장

사무총장
이정팔 목사
성시화운동본부장

교 회

김소윤 목사
(전)기감감독

신상우 목사
(전)나성감독

김원진 목사
(전)개혁총회장

임용석 목사
(전)개혁총회장

정병한 목사
아기연 대표회장

이승수 목사
(전)충기연총회장

박희종 장로
아산시장로회
대표

이영도 아산경찰서장

박서우 교육장

기관장

이명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박경귀 아산시장
(국민의힘)

'STOP WAR' 아이스버킷 챌린지 시작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 첫 주자로

'모든 전쟁 멈추고 세계평화 위해 노력하자' 성명 발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700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하며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기총은 1월 31일(수)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이사장)와 함께 'STOP WAR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이날 '모든 전쟁을 즉각 멈추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목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700일이 넘었다.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고 고통받으며, 두려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뿐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여러 내전이 멈춰지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칠곡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핵이나 미사일 도발은 강대강의 대결 구도만 조성할 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회의 장으로 나오고,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디자인 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우리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배경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퍼 흘린 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기습에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자유가 없이 어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기를 기도한다. 모든 곳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성명을 전했다.

기념사를 전한 ECI 류영준 이사장은 "ECI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로부터 3일 후인 2022년 2월 27일에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반전시위를 시작하여 약 2년에 걸쳐 전쟁을 중지하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전쟁이 멈추기를 염원하는 모두의 소망이 이 챌린지를 통하여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져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정서영 대표회장과 우크라이나 작가 일리나 클립코는 '우리는 하나다. STOP WAR!'를 외치고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총회장을 지목했다.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 2023년도 문학상 대상 수상 및 신인상 등단식

척박한 문학계에 새 바람 일으켜 줄 것 기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한국문화의 큰 힘을 써내려간 조지열(수필), 김민경(시) 님은 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한편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신인들을 발굴·배출하는 등단식을 갖고 올 한해 풍성한 문학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서막을 열었다.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 2023년도 문학상 대상 수상 및 신인상 등단식이 지난 1월 26일(금) 오후 2시 마포구 신수동주민센터에서 4층 대강당에서 열려 오후금 수필 정선회 시, 강봉순 시, 강경렬 시, 박경민 시, 이종희 시, 조재선 시 부문 등 7명을 단문에 내놓았다.

이날 문학상 대상 수상 및 신인상 등단식은 작가회 운영위원장 윤윤근시인의 사회로 시작되어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 발행인 박영률 시인의 내빈 소개 및 개회사, 평론가 김봉규 박사의 문학상 심사평, 시인 유승우 박사-박영률 박사 대독-의 신인상 심사평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박영률 박사는 제6회 사상과 문학상 대상 수필 부문 대상 수상자 조지열 님과 시부문 김민경 님에게 수상패와 증서를 수여했다. 수필부문 조지열 님은 35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몸담으며 교육자의 길을 걸어 왔으며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수필가로 활동하며 사랑의 뜻을 전했다.

등단자 대표 수필부문 오후금 님은 인사를 통해

한국에 새 지평을 열게 해주신 문학계 스승과 대선배

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주적인 가르침

을 주실 것을 급切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환영 논평

"이승만은 일생동안 국민계몽과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을 통한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국가보훈부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이 기억할 독립운동가 38종 한명으로 선정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 '1월의 독립운동가'로 단독 선정되었다.

1992년부터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 발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 공적을 기려온 국가보훈부는 지난 32년 동안 총 463명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반복 선정되었고 심지어 공산주의 성향의 독립 운동가들도 다수 선정되어 였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에 가장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자,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물론 1919년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을 무려 464번째야에 정부가 독립운동가로 공식 선정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를 동경하여 대한민국의 탄생을 이어워하는 이념 편향적인 운동가들이 그동안 얼마나 역사를 애곡하여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심어놓았는지 잘 드러나는 단면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부가 초대 대통령이 승만의 독립운동 공적을 올바로 인정하고 마지막 기회가 된 것에 대해 만사지탄(懲之懲之)감이 없지 않으나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다. 이에 살펴보니 세운 역사를 배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나아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독립운동 공적을 재인정하고, 한국교회가 이승만의 디딤과 같은 놀라운 업적을 성도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제안한다.

1. 청년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근대 정치사를 배웠고, 학장감으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 수많은 동료 독립운동가들을 전도하여 기르쳤으며, 국민계몽서인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1895년 4월, 만 20세가 된 청년 이승만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우리나라 최

초의 근대 사학인 배재학당에 입학해 자유와 평등 등 근대 정치사상을 배웠다. 특히 이들에 배재학당에서 특강을 한 서재필을 만나 개화사상에 눈을 뜨고, 국민 계몽운동에 헌신한 동지들과 함께 '협성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서재필이 호미 헐버트 선교사의 도움으로 창간한 최초의 한글 신문이자 영자 신문인 〈독립신문〉에서 주요 필진으로 활약하였다. 1897년 이승만은 배재학당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뽑혀 '조선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유창하게 영어연설을 하여 많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전도유망한 미래 지도자로 높이 평가되었다.

이후 이승만은 계속해서 서재필 등의 개화파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활동하여 1898년 3월 처음 열린 민족공동회 집회에서 연설하였고, 4월에는 〈매일신문〉 등에서 함께 하여 편집과 논설을 맡았다. 그리고 11월 고종의 독립협회 탄압에 항거하는 시위를 주도하다가 이듬해 1월 고종폐위 읊모사건에 연루되어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다.

온갖 고문으로 인해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맞은 이승만은 나라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처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후 함께 투옥되었던 동료 독립운동가들을 전도하였으며, 더 나아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학교와 도서관을 세워 운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감옥에서 〈신영한사전〉을 편찬하고 〈청일전기〉를 집필했으며, 〈제국신문〉 및 〈신한월보〉에 기고하는 등 활발한 '혹중 국민계몽운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윤미래, 근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선제적 필수조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 하도록 하는 기독교로의 교회를 주장한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2. 5년 7개월의 미국 유학시기 동안 청년 이승만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무려 200회 이상의 강연을 통해 한국인의 본격적으로 한인 독립역량 강화와

독립의지를 일렸다.

청년 이승만은 1904년 12월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들고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하였다. 1905년 2월 조지워싱턴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며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그 해 8월에는 하와이에서 온 윤봉구 목사와 함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1882년 조인된 조미수호조약을 근거로 한국 독립을 위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1907년 조지워싱턴 대학 졸업 후에는 하버드 대학 석사과정과 프린스턴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단 3년 만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하였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이승만이 조단기간 동안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修業)하는 외중에 미 동부와 중부 지역까지 수많은 교회와 단체를 순회하며 무려 200여 회 이상의 강연을 했다는 사실이다. 한 달에 13번꼴이다. 지역도 최소 10개 주 36개 지역을 다녔다. 이승만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강연들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함과 동시에 일본의 조선 침략을 고발하고,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강력히 호소했다. 사실상 한국 최초의 민간 공공외교이자 독립외교였다. 이승만은 이러한 대중강연을 통해 학비와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1906년 여름 메사추세츠 주에서 열린 민국기독학도공회와 1908년 3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열린 세계선교사대회, 1910년 5월 세계주일학교대회 등에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렸다. 또한 이승만은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을 위한 계몽운동을 계속했다. 예를 들어 1908년 7월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열린 미국동지대표자대회에서는 의장으로 활약하며 국민교육에 필요한 서적을 저술·번역·출판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3. 1912년부터 하와이에 정착한 이승만은 본격적으로 한인 독립역량 강화와

실력양성운동에 힘쓰며 한국의 독립과 새 나라의 건국을 구상했다.

이승만은 1910년 한국에 귀국했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2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로 피신하였다. 1912년 6월 프린스턴 대학 음시아자 대신 캠페인 중이던 뉴저지 주지사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을 만나 1882년 조인된 조미수호조약을 근거로 한국 독립을 위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1907년 조지워싱턴 대학 졸업 후에는 하버드 대학 석사과정과 프린스턴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단 3년 만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하였다.

이승만은 그러다가 1913년 2월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경유지인 하와이 호놀룰루에 정착해 본격적인 한인 독립역량 강화와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와이에서 그는 일제의 한국교회 탄압의 이유가 바로 기독교 교회의 자유·평등·사상·배양에 있음을 받아 미 동부 대도시를 순회하며 다시 한번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당위성 알리는 강연 활동을 벌였다.

이승만은 그러다가 1913년 2월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경유지인 하와이 호놀룰루에 정착해 본격적인 한인 독립역량 강화와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와이에서 그는 일제의 한국교회 탄압의 이유가 바로 기독교 교회의 자유·평등·사상·배양에 있음을 받아 미 동부 대도시를 순회하며 다시 한번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당위성 알리는 강연 활동을 벌였다.

이승만은 그 이후 1914년 3월에는 일제의 첨략과 만행을 규탄하는 외교활동을 펼쳤다. 또한 외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친우회를 미국 중·동부와 서유럽에까지 설치하여 공식적인 독립외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9월 대한민국인자정부는 이승만을 불허할 정도로 끝내고 전방위적이며 치밀하고 정교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섬리를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동을 전개했으며, 미국의 소리(VOA)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세계 한인들을 독려했다. 1945년 4월에는 국제연합 청립총회에 한국 대표단 단장으로 임명되어 활약했다.

위와 같이 20세 청년 때부터 1945년 해방을 맞는 7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꼬박 반세기동안 이승만이 이루어낸 국민 계몽과 독립역량 강화, 그리고 실력양성과 독립외교의 위대한 독립운동 업적은 티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끝내고 전방위적이며 치밀하고 정교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섬리를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5. 한국교회는 김교로 장로로 일생생 국회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이승만을 탁월한 독립운동가요 국회의 건국 지도자요 국부(國父)로 모셔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대통령을 선정한 정부의 노력에 빛맞춰, 이승만의 독립외교 업적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널리 전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김교로 장로로 일생생 국회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이승만을 탁월한 독립운동가요 국회의 건국 지도자로 모셔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은 국부(國父)로 추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가 밟은 경륜이 부족한 측근들의 권리으로 인해 독재의 비난을 받고 물리난 불행한 행적까지 미워 없이 남겨준 모습 그대로 후대에 고훈을 반드시 지속적인 흥보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개봉되는 두 편의 이승만 관련 다큐멘터리, 〈전국전쟁〉과 〈이승만의 독립외교 33년〉을 교회에서 상영하거나 전교인이 함께 관람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2024년 1월 29일
실록을 꿈꾸는 나눔행동

CTS기독교TV, 2월 새해 맞이 개편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CTS기독교TV(이하 CTS)가 새해를 맞아 볼 개편을 단행해 디자인을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 배우 신현준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내가 매일 기쁘게〉

CTS의 대표 프로그램인 〈내가 매일 기쁘게〉는 연기파 배우 신현준 씨를 새로운 진행자로 내세워 전국 목회자는 물론 각 분야별 전문가 등 각자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한 이를다운 간증 스토리를 담아낸다. 키페와 같은 포근한 세트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듯 편안한 분위기 속 깊이 있는 간증으로 체워질 예정이다. 배우 신현준 씨는 CTS의 대표 간증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많은 분들과 만나며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삶을 통해 은혜와 위로, 소망과 회개 그리고 감사가 넘치길 바란다.”며 “귀한 자리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늘 회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새롭게 개편된 〈내가 매일 기쁘게〉는 오는 2월 5일(월) 첫 방송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안내 : [본] 월~수 오전 9:00
[제] 화~목 오후 2:50 [상] 화~목 밤 9:40

■ 살아있는 성경, 그 현장을 함께 한다! ‘워킹 온 더 바이블 〈성경의 땅〉과 〈성지탐방〉’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성지프로그램. 워킹 온 더 바이블 〈성경의 땅〉과 〈성지탐방〉, 복기편을 맞아 성경의 현장을 더 가까이 느껴보는 성지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이스라엘 MFM연구소장 유병성 목사와 터치바이블 대표 김진산 목사의 현장감 있는 설명과 자료로 미처



성지순례를 직접 디녀오는 듯한 은혜와 감동이 전해질 것이다. 유병성 목사의 워킹 온 더 바이블 〈성경의 땅〉은 오는 2월 5일(월) 첫 방송 예정이며, 김진산 목사의 〈성지탐방〉은 오는 2월 7일(수) 첫 방송된다.

〈성경의 땅〉과 〈성지탐방〉 방송안내 : 월~목 아침 8:30

■ NEW CTS 두란노성경교실

CTS의 대표적인 성경 강의 프로그램 두란노 성경교실도 새롭게 단장하여 성도들을 찾а간다. 말씀을 통해 삶을 해석하며 친구와 회복이 있는 메시지와 성경공부가 진행된다.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원로목사와 곽승현 목사, 인천제2교회 이건영 목사, 강남중앙교회 정찬영 목사 등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목회자들의 특별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NEW CTS 두란노 성경교실〉 방송안내 : [본] 월~목 밤 11:20

월드비전, 범죄 피해 아이 회복 지원

‘하트힐링’ 업무협약 피해회복지원사업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지난 2월 1일(목) “범죄피해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피해회복지원사업 ‘하트힐링(Heart Healing)’의 공동 추진을 위해 디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수)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국법조회복지지원연합회, 재단법인 아기페, 소망교도소, 사단법인 윤율이 참석했다.

이날 각 기관들은 범죄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범죄피해 청소년 및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피해회복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영(기명)이는 8살부터 8년 동안 의붓아버지와 형

에게 맞고 지냈다. 이들은 훈육을 평계로 둑하면 기영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기영이는 의붓아버지와 형의 폭력도 괴로웠지만, 친어머니의 병원이 더 고통스러웠다. 기영이는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 생겼고, 몇 번의 자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얼마 전 쉬터에 입소한 한주(기명)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 한주의 아버지는 한주가 태어나자 마자 집을 나갔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던 한주의 어머니는 시기 혐의로 구속됐다. 한주는 엄마의 체포 현장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오갈 곳이 없어진 한주는 면 친척집에 맡겨졌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진리의 복음

진리의 영이시여 비움과 결손으로 옷 입으셨네.
생명의 산비 성십위 하나님의 본체시라.
아, 생명의 고귀함, 성령의 열매 그 친한함이아라.
태초에 말씀 있어 가리사대 명하실 때
생명의 기운 기쁨으로 충만하시어 수면에 운행 하셨네.
아, 감동의 극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으니
전국의 영광 빛나는 광채시라, 신령한 운율이로다.

회개하라!
아,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 우주에 가득하다.
기억하자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사랑 무한할진대
두렵구나 하나님의 진노.
그 사랑 거두시면 우주 만물은
사랑 없는 우주공간, 공기 없는 지옥이라.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속 장차 거두시면 평생 지옥 면기 어려우리.
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내 가장 앞서 거두시면 한 줌의 흙
바람 앞에 티끌 행복이여 순식간에 날아가리라.

교회여 회개하라 속히 거두실까 두렵도다.
교회 지옥 장차 면기 어려우니
그 고통의 무게 감당할 수 없으리라.

교회여 목자여 주 이르시기를



각막기증인들 감동스토리 영상공개

빛을 선물 받고, 빛을 선물한 두 기독 청년 이야기

제3시립의장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가 지난해 12월, 본부 유튜브 채널 ‘니콜라스TV’를 통해 각막기증인故 이숙경 집사의 딸 임지원 씨(29세)와 각막이식인 서지원 씨(여, 30세)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 ‘빛을 선물 받고, 빛을 선물한 두 지원 씨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 30일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낸 이숙경 집사는 각막기증을 통해 시작장애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새 빛을 선물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 집사의 딸 임지원 씨는 생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루 끼니를 걸어서라도 기꺼이 남을 도울 만큼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고인의 성정을 추억하며, 고인이 웨딩장 판정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고통에 비하면 어떤 고통은 감시하다’라고 말하는 등 오히려 기족들을 위로했다고 전했다.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이자 육남매의 맏이인 서지



나년 꿈도 희망도 모두 잃어갔다는 서 씨는 기적처럼 2010년 2월, 희소병을 앓다 하늘나라로 떠난 동갑내기 남학생으로부터 각막을 이식받았다. 각막이식 이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는 서 씨는 기증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서지도 두 번째 인생을 더 열심히 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잘 보이는 두 눈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누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자”라는 포부를 전했다. 끝으로 서 씨 역시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사실을 밝히며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해당 영상은 생명나눔에 배를 통해 장기기증 운동에 사랑의 힘을 보태고자 하는 교회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본부 유튜브 채널 ‘니콜라스TV’에도 게재됐다.

고신대복음병원, 사랑 나눔 현혈

노사가 앞장서서 이번 현혈 행사 준비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최근 “민주노총 고신대복음병원 지부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현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신대병원 노사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기념하는 동시에, 현혈 가능인구 감소와 중증 수혈 환자 증가, 전국적인 혈액 수급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사가 앞장서서 이번 현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혈 캠페인은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명의 교직원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100회 이상 현혈로 적십자로부터 현혈유공장 명예장을 수여받았던

던 감염관리실 주영숙 주임을 비롯해, 50회 이상 현혈로 금장을 수여받았던 교직원들, 병원 보직자 및 노동조합 고신대지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민주노총 고신대복음병원 이선옥 지부장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상급종합병원 털리의 여파로 힘든 기간을 노사가 함께 견뎌 왔다”면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으로 혈액수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도움이 되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중한 현혈행사에 노사가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사를 통해 꾸준히 사랑을 나누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풍부한 미네랄을 창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털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천일염과 천일염의 차이?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통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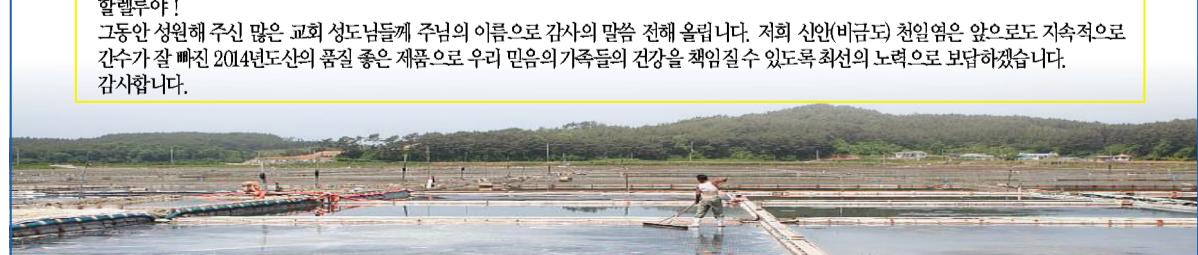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50,000원(택배비 포함) ■ 응행계좌 302-1777-9898-51 농협은행 김영국

활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짜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기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교회식품 또는 교회 선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더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려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밀음으로 생기 같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롤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한국교회의 개혁은 사람의 개혁이다



교회의 개혁이란 제도나 운영체계나 교리의 개혁이 아니다. 그같은 개혁은 1517년을 전후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제 사람의 개혁이다. 새로운 피조물 된 인식들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지도자들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슥 4:6).

교회는 목회자와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의 모습을 곧 교회의 모습으로 인식한다. 목회자의 모습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인식한다. 현 대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신정의(以信稱義) 교리를 삶의 열매로 증거하고 요구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고보서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먼저 발견했다는 헨드릭슨의 진술은 교리보다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극복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역사적 예는 한국교회 개혁의 해답을 주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3가지로 소개할 수 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다. 하늘나라에 절대가치를 두고 살이갔던 것이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멀리 있던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던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도
제만치 멀리만 있던 십자가.

어느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것이 죄라는 말씀 앞에서...
언젠가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 운명 앞에서...
아무소리 못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벡기를 든 날.

이천년의 세월만큼이나
멀리 있던 십자가의 예수님.
울먹이며 죄인임을 고백하니
띠뜻한 보혈로 감싸 안는 주의 사랑.
죄 사함 받으니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감사의 소리... 평안함의 찬양 소리...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저먼치 멀리만 있던 그 십자가...
중심에 들어와 내 심장에 세워진 그 십자가...
아직도...
이천년 세월만큼
먼 거리에서 서성이는 영혼들 향해
가라~ 가라~ 오늘도 말씀 하신다.



구원의 갑격을 모르고 교회 다닐 때와
구원의 갑격 안에서 누리는 삶의 차이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한 아침이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72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 교단 제72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일 시 : 2024년 3월 15일(금)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4일(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3일

AC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SSEMBLIES OF GOD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 사 김 병 뮤
총 무 목 사 정 진 균

사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올해는 세계적으로 비자유주의 확산하고, 독재를 견제할 독립기구들이 악화하며 젊은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취지 자체에 대한 혐오가 폭넓게 상황이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틸리티는 전 세계 167국을 네 개로 나누었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합 있는 민주주의, 혼합민주주의, 권위주의로 위주이다.

전 세계 올해 선거 46국 중 완전한 민주주의에 속하는 국가는 대만, 한국, 필란드 등 7개국 뿐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쪽에 기까운 결합 있는 민주주의는 18개국이고, 절반에 기까운 46%인 21국은 권위주의로 변질하는 중이거나 완전한 권위주의 국가는 12국이라고 발표를 했다. 북한은 권위주의 국기에 속하는 나라다.

김정은은 남조선 대신에 대한민국 것들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은 금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평양과 지방은 다른 나라다. 평양 이외의 지방은 자유국이다. 북한은 뇌물을 천국이다. 뇌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뇌물이면 안 되는 일도 없다. 평양의 특권층 자녀들은 뇌물을 주고 군대도 가지 않는다.

과거 북한 주민 중 대한민국 국호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사는 어떤 나라 정도로 알고 있는 형편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남조선은 '거지들이 들끓는 나라'였다. 북한 주민들은 태아나서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세뇌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데 김정은이 최근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다. 왜일까?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남조선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주 잘사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연일 '초토화', '대사련', '주작', '핵무기 사용' 등을 거론하면서 위협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그리고는 남북 회담 등 교류 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왜 그럴까? 통일부는 두 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하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남한에 핵 공격 가능성을 암시하며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걸어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라고 했다. 북의 도발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다시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프레임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다. 북의 도발 목적은 군사적인 전과리기 보다는 대남정치, 심리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슬로건으로 재미를 뺐던 민주당도 더 이상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는 로마의 키아사르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쟁은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이라고 했다. 돈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쟁에는 막대한 재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막대한 재물 뿐 아니라 전쟁을 하려면 오랫동안 병참과 무기들을 끌어 모아야하는데 지금 북한은 오히려 막대한 물량의 무기를 팔고 있다. 국민의힘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남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들여다보면서 잔꾀를 쓰고 있다. 과거에는 북풍이 먹혔지만 이제는 별 호응이 없다.

북한의 MZ세대는 물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한국을 동경하며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김정은이 한류에 민족 개념과 평화 통일을 빼면서 북한의 MZ세대에게 통일은 없다고 단념시키는 것이다(태영호 의원), 남한을 초토화 시킨다면서 북한은 오히려 포탄과 미사일 상당수를 러시아에 팔고 있다. 푸틴과 정상회담 직전에 러시아에 1000개의 콘테이너에 무기를 실어 러시아에 보내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핵무기가 있으니 마구 핵무기를 터뜨리라고? 유사 아래로 핵무기를 발령한 후에 터뜨린 것은 일본에 터뜨린 게 유일하다. 북한보다 더 아마무시하게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터뜨리지를 못해 북한에서 재래식 무기를 사면서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가 눈에 보이지 않나?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과 미국은 두 손 놓고 구경만 하니? 천만에 말씀이다. 유엔에서도 기만하지 않는다는 6·25 때와는 사정이 180도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일 도발한다면 몇 배로 응징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발을 대비해서 유비무환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삶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 4:16)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현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현근

